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2> 선각 국사 도선(先覺國師 道諒, 827~898)

# 민중의 삶 지향한 선종 정신 계승

돌아보면, 신라 하대 불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불교가 융성했다는 점이다. 그 융성한 불교가 각 지역 세력과 결합해 지방 세력을 형성하고서 중앙의 지배에 반했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불교가 통치이념을 제공하던 때에 그 불교의 각 세력이 지방의 권문세가와 밀착해 중앙의 통치에 반한 것이 신라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불교가 불교 본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명리에 몰두해서 탐욕을 갈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경험한 태조의 예비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비책에 도선 국사의 사탐비보설이 등장하고, 그 사탐비보설이 도선 국사를 단순히 음양설의 도참가라고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태조가 지적하고 있는 땅의 덕(地德)은 단순히 땅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곧 민심이 이반하고서야 온전할 나라도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태조의 생각인 것이며, 사탐비보를 말한 도선 국사의 생각 역시 그 민심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그렇지만, 신라시대에도 역시

원당(願堂), 곧 왕실이나 귀족들의 기원에 의해 지어지는 대규모의 사원은 민초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별한 배려가 없어서야 대규모의 토목사업은 반드시 라고 해도 좋을 만큼 노동력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민중에 대한 수탈을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원당의 창건이 특별한 제약 없이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민심이 이반할 것은 불문가지일 터이다.

땅을 일구고 살아가는 원전은 민중의 노동력에 있고, 그 민중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면 국가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풍수지리설 자체가 일종의 인문지리학이라는 주장이 대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도선 국사 풍수지리설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논의도 활발한 것 같다.

필자는 도선 국사의 사탐비보설의 형식적인 원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탐비보설의 형태 자체보다는 사탐비보설을 받아들이고 적용한 정신적 원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선 국사의 정신적 원형은 역시 그 스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도선 국사는 신라 하대의 승려로 속성은 김(金)씨이고



고려 태조 왕건의 초상화

법호는 신종(辛宗)·도승(道乘)이며, 시호는 요공(了空)·선각(先覺)이다. 신라 흥덕왕 2년(827)에 전남 영암의 구림에서 태어났으며, 문성왕 4년(842)에 월유산 화엄사에 출가했고, 문성왕 9년(847) 20세에 이르러 동리산 태안사의 혜철 국사(慧哲國師)의 문하에 귀의했다.

혜철 선사는 중국의 서당 지장 선사에게 배우고 귀국해 동리산문을 개창한 조사이다. 사실 이 혜철 선사를 전후해 신라에는 남종선을 배운 선사들이 귀국하여 아홉의 산문을 개창했는데, 이 같은 신라 하대 선종의 융성은 단순한 새로운 사조(思潮)의 유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귀국 초에는 대부분 환영받지 못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민심의 귀의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들의 관심과 지향이 민중의 삶 그 자체에 있었기 때문이다. 도선 국사는 그러한 선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19

### 불교 세계관과 산악 활동 조화 (수험도와 엔노 오즈노(圓))

수험도의 창시자는 엔노 오즈노(7세기 후반~8세기경)로에 관한 전설은 일본 최고의 불교설화집인 <일본영이기>에 등장한다. 그는 허공을 나는 신선이 되기를 희망해 40세까지 암굴에서 살았다. 이윽고 공작경(孔雀經)의 주법(呪法)을 수행, 주술을 구사해 귀신을 부리게 됐다. 귀신들은 카츠라기산의 히토코도노시(一言主)라고 하는 신에게 옮겨 불어 엔노 오즈노가 왕을 모함해 없애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왕으로부터 파견된 사자는 엔노 오즈노의 강력한 수행력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어 그의 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니를 놓아주도록 간청한 그는 바로 유배를 당했다. 낮에는 적명에 의해 유배된 섬에서 수행을 하고, 밤에는 후지산에서 수행을 했다. 3년간의 유배생활이 끝나고, 701년 조정 가까이 옮겨와서 사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마침내 신선이 되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어느 날 일본 승려 도쇼(道照)가 적명으로 당나라에서 수행 중에 500마리의 호랑이를 불러 <법화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청강하는 호랑이 무리 중에 한 인간이 있어 일본어로 질문을 했다. 누구냐고 묻자 그는 내가 엔노 오즈노라고 했다. 이후 히

약행을 멈추고 수행을 하는 수행을 말한다.

여섯 번째는 천도계로 기쁨의 수행이다. 산 정상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가슴이 트이는 수행의 기쁨을 만끽한다. 더불어 수행의 공덕으로 수명이 연장된다는 기쁨이 솟는다. 일곱 번째는 성문계(聲門界)로 가르침을 기쁘게 듣는 수행이다.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이해하는 수행이다. 산중의 전승이나 행사에 대해 듣고 통달하도록 노력한다. 여덟 번째는 연각계(緣覺界)로 침묵의 수행이다. 침묵에 잠겨 대자연에 자신의 몸을 놓으면 신불(神佛)과 일체감을 느낀다. 인간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청정일념이 되어 눈에서는 모든 환상이 제거된다. 아홉 번째는 보살계로 봉사의 수행이다. 동행인을 돕고 타인에게 봉사하는 6바라밀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 열 번째 불계(佛界)로서 감사기도의 수행이다. 산중에서 신불의 세계를 체험하고 불성을 회복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이처럼 수험도는 불교의 세계관과 산악 활동이 잘 조화된 수행 작법을 발달시켰다. 최종적으로는 밀교의 관정을 받음으로써 즉신성불을 이룬다.

### 십계 수행 통해 성불 지향 한 때 군사적인 힘도 강화

수험도는 중 한 때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군사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천태

수행은 십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지옥계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수행이다. 입산해 겪는 뜨거운 땀과 비바람, 추위 등을 통과해야만 한다. 두 번째는 아귀계로 만족을 아는 수행이다. 수행 중 공복을 참고, 갈증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으며 부족한 식사에도 만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축생계로 노동의 고통을 인내하는 수행이다. 짐을 나르는 동물처럼 입산수행 중 짐을 지고 급경사를 오르내리며, 험한 길을 가더라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수라계이다. 산중 수행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용맹심으로 극복하고 정진해 가는 힘을 말한다. 다섯 번째는 인간계이다. 마음에 묻은 번뇌를 제거하고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참회를 통해

중에 소속 되도록 강요했다. 근세 이후에는 지옥사해에도 뿌리를 내려 주술적 종교로 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천태종이나 진언종은 왕실이나 귀족과의 관계가 강한 편이지만, 현세이익을 발판으로 한 일반 민중과의 관계에서 수행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험도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일본의 자연환경 속에서 민중 스스로 불법에 대한 해석과 자신들의 삶과 동화시켜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문명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한 자연에 대한 귀소본능을 불교적인 심성으로 부활시키고자 한다. 수험도에서는 이처럼 생명력 넘치는 종교성을 엿볼 수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 장지연 선생과의 나이·사상 초월했던 우정

경봉 스님이 26세이던 1917년, 통도사 마산 포교당 주지소임을 잠시 살던 때가 있다. 이곳에 부임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스님은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1864~1921) 선생을 만나게 된다. 장지연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때 항일의병 결기를 호소하는 격문을 짓고, 이상재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사실을 써서 일제의 만행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 사실을 알렸다.

위암 선생은 경봉 스님과 만나기 전에 이미 스님이 계를 철저히 지키고 설법도 잘 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 경봉 스님이 마산에 오기 전에 6개월간 토굴 속에서 혹독하게 정진했다는 것, 석장을 쥐고 요령을 흔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법문을 한다는 것, 졸음을 쫓기 위해 기둥에 머리를 박고 얼음을 입에 물고 정진했다는 등 스님에 대한 소문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위암 선생이 경봉 스님을 만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스님이 시문에도 대단히 밝다는 점이었다. 선생은 첫 눈에 경봉 스님의 기품 있는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알아봤다. 180cm의 흰쨍한 키에 단아한 입술, 거기에 한없이 맑은 눈은 26년의 나이 차이를 떠나 경봉 스님을 저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게 했다.

"경봉 선사는 통도사의 큰스님이다. 그의 성품은 단아

하고 학식은 해박해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며 유가의 선비들과 잘 어울리니 대개 해원과 영철 같은 분이다. 마산포교당에 머물면서 설법하고 계행을 지니니 모든 선남선녀 신도들이 신앙하고 귀의해 계를 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나 또한 스님의 오묘한 견해와 정진 그리고 원만하면서도 맑고 담박함을 좋아해서 법석에 임하여 법문을 들은 지 여러 해가 됐다."

훗날 장지연 선생이 밝힌 것처럼 경봉 스님과 그의 만남은 그의 지친 삶에 청량제 역할을 했다. 특히 스님과 서신으로 시를 주고받던 일은 선생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합포성 서편 학령엔 가을이 물들고 포교당 높은 곳 선정이 깊네. 숲 사이로 뭇단배는 연기 속에 아물아물 하늘이 산봉우리는 물위에 비치네. 깎박이는 등불, 어리는 항기에 스님은 선정삼매. 범종소리 그치지 꿈에서 깨어났네. 동글고 둥근 동방의 밝은 달 우담화 피듯 오대주 두루 비추소서. <합浦城西鶴嶺秋 教堂高處徹禪樓 樹梢遠處船煙中 天際群峰水上浮 燈燧香殘僧獨定 梵清鐘歇夢初收 也知滿滿東方月 遍照曇花五大洲>

장지연 선생의 글에 경봉 스님은 아래와 같이 화답했다.

우담화 꽃 핀지 그 몇 해인가 창생을 제도하며 세상을 경계하네. 사자후 토하는 바위 앞에 푸른 뿔 우뚝하고 웅트립 하는 바다 위에 흰 구름 떴네. 보배 칼날 찬란하니 두려움 없고 지혜 달 영롱하니 흥이 겹구나. 하늘같이 높은 파도 누워서 헤쳐 나오나 야삼경 금까마귀 강가에 내려오네. <優曇花發幾春秋 晚度蒼生警世樓 獅吼巖前青嶂立 龍吟海上白雲浮 寶鋒璨爛心無怖 慧月玲瓏興未收 誰在滔天浪裡返 金烏夜半下長洲>

나이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두 인물의 우정은 계속됐다. 경봉 스님이 부모의 은혜를 기리는 보은담을 건립할 때 위암 선생이 적극 나서 이를 도왔고, <조선 불교종보>(1919)에 '마산신조불석탑(馬山新造佛石塔)'이란 글을 기고해 경봉 스님의 송고한 뜻을 기리기도 했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 네츰컬 삼베 멩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질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中) (大)

■ 삼베 멩석 카페트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식 시트로 최적!

- ◇ 용도 (공용) : 요거트,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